



09호

뜨락

경기외국어고등학교 신문 2011. 12. 15.

GAFL

경기외국어고등학교
Gyeonggi Academy of Foreign Languages

- 발행인 : 박하식
- 발행처 : 경기외국어고등학교
- 기획 : 지도교사 김시경,부장 최연재
- 취재 및 편집 : 김민지 외 신문부 15명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산 21-2
- 전화번호 : 031_361_0500
- 팩스번호 : 031_361_0599

키워드로 알아보는 올해의 사건들



새로운♪

3월 2일 파릇파릇한 8기들의 입학식

3월 5일 신입생 871와 재학생 6,771의 상견례

3월 동아리 신입 부원 선발

-동아리 홍보 포스터로 가득했던 계시판, 재미있는 면접과 PR~
새로운 동아리도 많이 생겨 더욱 즐거웠던 시간!

선거

3월 5일 각 학급 입법·사법위원 선거

-이번 해에 많이 개편된 임원 제도로 새로웠던 선거

3월 24일 총학생회장 선거

-유독 뜨거웠던 올해 선거운동!

그리고 임태균, 이의진, 이승준 학생의 당선

4월 1일 학생 임원 수련회

8월 20일 각 학급 입법·사법위원 선거

시험의 압박

3월 25일 1·2학년 대성 모의고사

4월 18~20일 중간고사

6월 15일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7월 11~15일 기말고사

12일 2학년 국가학업 성취도평가

10월 17~19일 중간고사

11월 10일 대수능

11월 15일 1·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12월 19~22일 기말고사

우리들의 행복했던 시간

4월 21~23일 재량 휴업일 & 1학년 모교방문

-시험을 치른 후 달콤한 휴가♡

4월 25~29일 1학년 전공어 회화 단기 집중 이수

-주요 일간지에도 기사화되었던 영어마을 여행!

5월 13일 체육대회

5월 21일 1·2학년 Pride of Korea

6월 4일 2학년 Pride of Korea & 1학년 채풀, 조회

-학교를 떠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PK,

그리고 다정한 남편, 좋은 아빠의 상징 선의 강의!

6월 13일 제 8회 개교기념일

7월 15일 사제동행 문화체험

7월 16일 여름방학식!!

10월 20~21일 대학탐방, 직업체험, 진로탐색

11월 24~25일 축제 GAFLIESTA

-우리들의 열정과 꿈이 날개를 달고 활활 날던 2011 GAFLIESTA!

12월 1일 트리 짐동식

12월 22일 기말고사 후 선생님과 함께한 사제동행 문화체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함께한 겨울방학식!!!

12월 26~28일 초등영어 학습봉사

2012년 2월 9일 6기 졸업식



대회대회대회

- 4월 30일 교내 논술대회
- 5월 19일 한국사 경시대회
- 5월 24~25일 GMUN
- 5월 26일 수학 경시 대회
- 6월 3일 2학년 교내토론대회 예선 & 경제 경시대회
- 6월 17일 2학년 교내토론대회 결선 & 외국어발하기 대회
- 6월 18일 KOREA High-school 라크로스 리그
- 6월 21일 GAFL Individual Speech Contest
- 7월 1일 지리경시대회
- 10월 6일 우리말 겨루기 대회
- 10월 28일 English Essay Contest
- 10월 29일 교내 논술대회
- 11월 24일 English Debate Championship
- 11월 25일 외국어경시대회

진지함

4월 2일 2학년 Career Day

-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의 학습 노하우,
- 대학의 다양한 전공에 대해 더욱 깊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4월 4~8일 1학년 세족식

-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시간으로 경기외교에만 있는 특별한 행사

6월 10일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포상식

- 일 년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던 순간

9월 17일 1·2학년 Career Day

-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신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 법, 경영, 교육, 국방, 정치,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넓고 깊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

최연재 기자





학생들의 그 날! 만우절의 최강자들이 모였다!

만우절 기념 이벤트 BEST 3

지난 4월 1일, 학생들의 장난끼가 최고조에 이른다는 대망의 만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다. 가플리언들은 전날부터 각반에서 만우절 장난 끈 급급회의를 소집하고, 교실배치를 미리 바꿔놓는 등 만우절 장난은 창의적이고 열정적이었다. 만우절 날 평소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각 반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들! 그 중 특별히 기발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Best 3를 소개한다.

2년의 내공을 담아! 경기외고의 현 실세 2학년 학생들의 만우절 이벤트 Best 3!

Best 3

[2~8] -수업 시작 할 때 반장이 차렷! 경분! (다같이 '으아아아!' 하며 책상 광 치고 일어나기)

(하지만 우리의 Ms.Joy는 역시 아무 내색도 하지 않으셨다고.)

[2~5] -수업 시작 할 때 반장이 차렷! 경명! (다같이 책상 두드리며 두구두구~)

차렷! 경악! (끼아아 소리지르기)

-장혜인 선생님의 무기, 헤커스 단어테스트 젓가락을 아무것도 안 쪼진 빈 젓가락으로 바꾸기!

(단체로 덜덜덜덜)

교실을 바꾼 것에 대한 선생님의 반응은? 말이 필요없다. 우리의 Ms.Joy.

(반장의 망!) 2~2반에 앉아있는 1학년 2반 아이들이 선생님께 혼나고 있다는 말에 상황을 수습하려 올라갔더니 아이들이 모두 책상 위에 무릎을 놓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혼내시면서 1학년 아이들에게 '손 안들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잔뜩 우울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있는 친구들을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좌우로 훌어!"라는 조현주 선생님의 한마디와 함께 좌우로 힙합스럽게(?) 훌더리는 아이들의 팔.....다들 미리 째고 저를 낚은 거였어요."

2교시) -교복 거꾸로 입고 뒤돌아 앉아있기. & 한 명씩 피곤한 척을 하며 교실 뒤로 나가기

-한 친구가 수학문제를 앞에서 풀어보겠다며 뜬금없이 나가 발표시작. 곧 다른 친구가 따라 나와 지적을 하고, 서로 자신의 풀이가 맞다고 우기며 싸우다가 달싹움으로 전환!

4교시) 발표하다가 갑자기 PPT 화면에 '눈치게 임시작!'을 띠우고 눈치게임시작!

5교시) 칠판에 헌트만 날기고 다같이 체육관으로 도망가서 숨어있기. 선생님께 모두 잡힌 후에 교실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운동장으로 도망가기! (일탈~)

Best 1

[1~6]

-문혜경 선생님 시간 : 몰래카메라를 했다. 체격이 왜소한 남학생 뒤에서 반장이 갑자기 샤프를 던지고 자리를 겉어차면서 욕을 했다. 선생님은 두 학생의 명연기에 속어 수업을 중단하시고, 상황을 종재하기 위해 노력하셨다. 수업이 끝날 때 까지 차운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수업이 끝난 후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문혜경 선생님은 눈물을 터뜨리셨다.

- 영화를 보는 'Wombat' 안종혁 선생님 시간.
- "怦! 안보여요!", "아~_ 하나님도 안들려."라고 하면서 앉아있는 상태로 책상과 의자를 끌며 앞으로 전진! 선생님의 자리는 순식간에 1평도 안 되게 작아졌다. 조금 있다가는 "소리가 너무 큰 데?", "아..목 아파~_"라고 하면서 교실 맨 뒤까지 쭉쭉 뒤로 나갔다.

-정대섭 선생님 시간.. 선생님과 야자타임!

번외) 어릴 때 했던 재미있는 만우절 거짓말!

- 차렷, 경례! 안녕히 가세요~ 하고 밖으로 우르르 나가기.

- '위아래가 뒤집어졌어-' 하고 물구나무에서 복도 거닐기

-교실 이름판 바꿔 끼우기

가플리언들은 작년보다 훨씬 다채로운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더욱 쌓은 듯하다. 성실히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 만우절은 더 재미있는 하루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호준희, 황수림 기자

선배들에게 질 수 없다! 경기외고의 귀요미 1학년들의 만우절 이벤트 Best 3!

Best 3

[1~?] 수업 시작할 때, 반장이... 차렷! 경련! (덜덜덜덜~) 차렷! 경주! (뒷문으로 차례대로 뛰어나가서 다시 앞문으로 질서정연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수업진행..ㅋㅋ)

Best 2

[1~2] 같은 과 선배님들과 교실을 바꿔 수업하기!
(낯선 얼굴들에 깜짝 놀라신 선생님들도 계신 반면 눈치 못 채고 수업을 하신 선생님도 계셨다고...)

Best 1

-우리를 따라 올 반은 없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알차게!

[2~2]

1교시) 1학년 2반과 교실 바꾸기! & 차렷! 경련!

신생 동아리 소개

2011년은 경기외고에 있어 동아리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약 50개였던 동아리가 100여개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여러 동아리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있다. 그러나 동아리들이 늘어나면서 경기외고 학생들은 어떤 동아리를 선택해야 할지 혼돈스럽기도 하다. 이 지면에 각종 동아리의 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몇 개의 신생 동아리를 소개해 본다.



〈광고동아리 AD.vent〉

광고동아리 AD.vent는 매주 화요일 SA시간에 아트룸에서 활동하고 있다. 체육대회 등의 행사에서 공익광고를 하거나 티 동아리를 광고해 주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D.vent의 부장인 이상은(2-7), 손호정(2-8) 학생과 인터뷰했다.

Q. 동아리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A. Advertisement(광고)와 Invent(발명하다), 두 단어의 합성어로 ‘광고를 발명하다’라는 뜻입니다. Adven이라는 단어 자체는 출현, 도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Q. 간단한 동아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AD.vent는 경기외고에서 유일한 광고동아리입니다. 광익 광고 제작뿐만 아니라 타 동아리나 학생회의 광고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아트룸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고 제작 활동은 물론 친목 도모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부장 2명, 차장 1명과 17명의 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광고동아리는 특성상 오디션에서 창의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오디션 볼 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지만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광고에 관련된 짤막한 질문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공익 광고를 제작한다면 어떻게 제작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피자 조각 중 하나의 조각이 없어도 우리는 무언가 이상하고 생각할 것이다. 그 피자를 시계처럼 표현해서 그 한 조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가치 있을 수 있는지를 표현하자.’라는 답변이 나와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인상 깊었던 동아리가 무엇이었는가,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카피라이터, 기획, 제작 등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를 물어보았어요.

Q. 오디션에서 아쉬웠던 점?

오디션 광고가 늦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추가 오디션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Q. 그렇다면 추가 오디션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2학기 때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Q. 지금까지 한 활동에 대하여 소개해 주세요.

A. 체육대회 때 페어플레이를 소재로 해서 솜사탕을 판매하는 공익 광고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 투자한 돈에 비해 많은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짧은 시간동안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대회이동 전의 페어레이디지를 그려서 영어, 중어, 일어과 모두 원래는 하나님보다는 광고를 하였고, 페어플레이 모양의 퍼즐을 만들어 페어플레이를 호소하는 광고를 했어요. 또한 솜사탕 모양의 부채를 만들어 간접 광고에도 신경

을 썼고 그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솜사탕을 사려 왔어요. 수익금은 페어플레이라는 취지에 맞게 ‘축구공 보내기’ 캠페인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새로 바뀐 급식 캠페인에도 참여했는데, 두 명당 한 텁을 이루어 음식 남기지 말기, 먹은 자리 깨끗이 하기, 수저 똑바로 놓기 등의 주제로 참여했습니다. 광고 동아리답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련되고 학생들의 이목을 한 눈에 이끌 수 있는 광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착취&나눔 동아리(?) 동인 도 회사〉

자칭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동아리’인 동인도 회사는 올해 처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0명이 넘는 부원이 활동하고 있는 큰 규모의 동아리이다. 많은 부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동아리인지’ 알기 위해 부장인 대승주(2-7) 학생과 인터뷰해 보았다.

Q. 동아리를 만들게 된 동기는요?

A. 친구가 장난으로 던진 ‘착취’라는 한 마디에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나눔을 실천해 보자는 것이었죠. 활동 계획도 없었지만 ‘하고 싶은 걸 하자!’라는 모험정신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Q. 지금까지 한 활동, 지금 하고 있는 활동,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 주세요.

A. 지난 5월 어비니날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양로원에 전달했습니다. 지금은 2학년 미술 시간에 남은 염색 험감을 기부 받아 나눔디자인(Sharing Design)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시설 김강돕기, 동아리 카페를 통해 번 수익금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작은 가족에서 친구, 가족, 사회까지 주위 사람들부터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작지만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전하고 있어요. 평소에 해볼 수 없는 재미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동아리만의 특징은?

A. 다음 활동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Q. 동아리에 많은 부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도록 한 이유와 그 장, 단점이 무엇인가요?

A. 사실 오디션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열심히 할 사람은 스스로 열심히 하려 을 것으로 바쁜 사람은 스스로 오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부원이든 아니든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이 모험이긴 했지만 좋은 후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많다보니 공지도 어렵고 활동도 스케일이 커야해서 부담도 많지만 열심히 하는 부원들을 보면 열의가 불타올라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A. 신생동아리 중 가장 빛나는 동아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뭐 하는 동아리인지도 모르고 와서도 모르고 와서도 믿고 따라와 준 동인도 회사 친구들 모두 사랑해요!

경기외고의 동아리 중에는 1기부터 꾸준히 명맥을 이어온 동아리도 있고, 일명 ‘유령 동아리’로 불리며 활동이 뜬한 체 동아리명만을 지켜 오는 동아리도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신생 동아리들이 꾸준히 활동해서 굳건한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 호에 또 신설 동아리를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유예슬, 왕지민기자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현재 경기외고에서 가장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가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매월 700원에서 2000원의 돈을 내고 반에 걸친 후원아동의 사진을 본다. 하지만 우리들 중 우리의 돈이 후원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과연 우리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아프리카의 작은 친구들에게 어떤 기쁨이 되고 있는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작년 1~8반 김민규 학생에 의해 시작되었다. 반 아이들끼리 돈을 모아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성공리에 진행되어 교내 1,2학년 총 10반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발돋움한 것이다. 현재 1,2학년 10개 반에서 1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고 후원금은 총 30000원이다. 그럼 이 30000원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먼저 아프리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이다. 매년 약 200만 명의 아동이 더러운 물을 먹고 수인성 병으로 사망한다. 그들은 흙탕물을 길어오기 위해 수 킬로미터를 걸으며, 더러운 물을 먹고

죽은 가족 때문에 삶의 기반을 잃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후원금은 후원 아동의 지역에 물물을 설치하고 농사에 쓰일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데에 쓰인다.

또 아프리카는 낙후된 환경으로 에이즈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리기 쉽고 상처가 나도 제 때 치료를 하지 못해 병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낸 돈은 후원 아동의 지역에 의약품을 보급하고 보건 인력을 지원하는 데에 쓰인다.

마지막으로, 결연 아동은 우리가 낸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활

동을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대물림 되는 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은 한 아이, 더 나아가 한 마을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제 다시 한번 반에 걸려있는 후원아동의 사진을 쳐다보자. 아마 전보다 더 뿌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경기외고의 1,2,3학년 모든 학급으로 확대가 되어, 작은 정성이 큰 사랑으로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손가연 기자



체육대회 이모저모

축제와 함께 경기외고의 가장 큰 행사인 체육대회가 지난 5월 13일 열렸다. 올해에는 1학년 영종과 2학년 일어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체육대회 이모저모, 사진으로 살펴본다.





2011 체육대회 이모저모



◀ 축구

1학년, 2학년 경기 모두 영중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본 경기 외 여러가지 친선축구경기도 큰 재미였다.

7기에 비해 더욱 심해진 8기의 남여 비율 불평등으로 인해 축구선수 인원을 채우기 힘들었던 과가 있었다는 후문도 들린다.



◀ 닭싸움

1,2 학년이 함께한 경기였던 닭싸움은 일어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 농구

경기종료 몇 초 전에 동점꼴이 들어가 연장전으로 이어지는 등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농구 경기에서 극적인 순간이 많았다. 1학년의 영중과, 2학년의 일어과가 우승했다.



◀ 피구

여자의 자존심! 피구는 1학년 중어과, 2학년 영일과에게 우승이 돌아갔다.



페레이드

체육대회의 花, 퍼레이드! 작년의 경험을 통해 한층 수준 높아진 2학년의 퍼레이드와 신선하고 귀여운 1학년의 퍼레이드는 체육대회의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반기

여러가지 특특뛰는 아이디어가 둘보였다. 특히 올해 반기에서는 용, 사자, 독수리 등 동물이 많이 쓰였다.



체육대회 점심 급식

체육대회 점심은 직영 전환 이전의 급식 중 역대 최고였다.



박터트리기

올해 처음 생긴 종목인 박터트리기. 경기시작과 동시에 희비가 엇갈렸다. 일어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발야구

작년에 신설된 종목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발야구는 1학년 영중과, 2학년 영일과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제주

체육대회의 마지막 백미를 장식하는 제주는 영중과가 1등을 했다. 올해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뛰는 경기로 바뀌었는데, 재미있었다는 반응과 학생들만 선수로 뛰었던 작년이 나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신설했던 신설 경기들

베드민턴, 여자축구 등 올해에는 많은 종목들이 새로 생겼다. 새롭고 재미있었다는 평이 많았다.

국제 봉사의 참된 의미



울란바타르에서는 아이들이 50명 정도 다니는 작은 교회에서 학습 봉사를 하였다. 아이들에게 한글과 영어를 가르쳐 주고, 함께 예체능 활동을 하였다. 학생들은 몽골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 주었는데, 물이 부족해 제대로 쓰지도 못했지만 한국 학생들이 온다고 맛은 진짜 낸 몽골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에 새로운 희망을 그려주었다. 경기외고 학생들은 아이들에게 물총과 장난감을 했는데, 몽골 아이들이 고장이 나도 고치고 또 고쳐서 쓰겠다는 말에 도리어 가슴 깊은 곳을 아련하게 하는 감동을 선물 받았다. 떠나는 것이 아쉬워 아이들의 얼굴에 그려진 물감이 묻든 말든 이제는 전혀 거리낌 없이 아이들을 안아주는 경기외고인의 모습은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선함 그 자체였다.

‘한국은 천국이다’ 몽골을 떠나 집에 와서 사위기를 들자마자 들었던 생각이다. 비록 짧은 경험 이었지만, 국제 봉사는 다른 봉사보다 큰 감동과 뿌듯함을 주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보면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 할 만한 곳에서 몽골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불평불만을 하며 산다. 매사에 감사하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는 참된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봉사의 참된 의미는 동정도 아니고, 도와주겠다는 의지도 아닐 것이다.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삶이 봉사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황수림 기자

여름방학에 경기외고인 20여명은 몽골로 국제 봉사를 떠났다. 나흘은 아르항가이라는 도시에서 국제 해비타트 주최 ‘사랑의 집짓기’를, 이를은 수도 울란바타르의 교회에서 학습 봉사를 하였다. 몽골은 영어가 통하는 나라도 아니고 낯설은 국가라서 많은 학생들의 얼굴빛에서 막연한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더군다나 집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폐만 끼치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그렇게 기말고사 기간 동안 봉사 준비를 하고, 방학식을 하자마자 바로 몽골로 떠났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버스로 10시간 떨어진 작은 도시 아르항가이. 그곳의 상황은 정말 제3세계 사진에서만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심지어 학생들이 머무른 숙소도 이름은 호텔이었으나 물이 안 나올 정도였다. 4명의 팀을 이루어 5개의 집에 집짓기 봉사를 했다. 그런데 다 쓰러질 듯한 폐허나 다클이 없는 그 집 아이들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다. 그 곳의 여자 아이들은 물을 긋는 일을 한다. 5L짜리 뚜껑도 없는 물통 3개를 전혀 13살로 보이지 않는 깜마른 여자 아이가 수레에 실고 간다. 경기외고 남학생이 달려가 이를 도와주는데 남학생도 물기가 힘들 정도로 무거웠다. 이 아이가 매일 이렇게 고된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학생들은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학생들은 그 아이와 가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땅을 파고, 텁질을 하고, 물을 긋었다.





미국으로 GVT를 다녀온 이혜경 양의 후기 AMERICAN DREAM

AMERICAN DREAM.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이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책, 영화에서 심지어 학교 영어청해 시간의 I HAVE A DREAM연설문에서도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다. 이 말을 들어오면서 '도대체 미국은 어떤 나라인걸래 사람들이 아메리칸드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이번 GVT를 통해 이러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이가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값진 연수였다.

우선 하버드, 예일, 유펜, MIT, 프린스턴, 컬럼비아 등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명문학교에 방문해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신 한국인 박사님들과 학교 학생들을 만났다.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엿보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경기외고의 국제반과 국내반 중 국내반에 속한 많은 학생들은 한국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학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사님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고, 학교 홍보부의 학교 설명을 들어보니 반

드시 미국 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나중에 학부, 박사과정으로 얼마든지 입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유학에 대해 조금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었으며 자신의 미래를 더욱 넓은 안목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노숙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경기외고 학생들은 APPA를 통해 음식을 만들어서 슬럼가 노숙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한국 관련 기념품을 선물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실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힘 없이 누워 있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노숙자들을 보면 죄운한 마음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평소에 얼마나 계으르게 살았으면 노숙자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선교사 선생님을 통해 많은 참전 용사들이 전쟁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서 정상적 삶을 영위 할 수 없게 되었고 노숙자들 중 이런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우리가 갔던 워싱턴의 공원에는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

가 트라우마로 인해 노숙자 된 사람들도 있었다. APPA봉사활동을 통해서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무능하다고 생각한 노숙자人们对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그들의 삶과 그 안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 공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깨뜨리고 공장을 놀이공원 같이 재미있는 곳으로 재구성한 허쉬초콜릿, 브로드웨이의 오페라의 유령, 웅장한 나이아가라폭포 모두 인상깊었다. 또한 미국 양로원에 계신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하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경기외고인들은 방학에 해외로 나가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양하고, 세계의 문화와 삶을 몸소 느끼며 가슴 속에 원대한 포부와 꿈을 품고 돌아왔다.





베일에 감춰진 IB class, 그 진실을 파헤치다! -국내반은 모르는 IB반의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경기외고는 국내 최초 IBDP 인증을 받은 학교이다. 경기외고의 IB반은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IB반이 국내반과는 떨어져 Global Hall에서 일과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반 학생들에게는 그 생활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Main Hall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에 라크로스를 하고, 잔디밭에서 활기차게 수업에 참여하는 IB반 학생들을 보면 마냥 부럽기도 하다. 실제 IB반 학생들의 생활은 어때까? IB반 학생들의 일과를 파헤쳐 보자.

〈IB반의 시간표 예시〉

화요일	수요일
1교시: Film	1교시: Chemistry
2교시: Film	2교시: Chemistry
3교시: 수학	3교시: History
4교시: 수학	4교시: History
5교시: 영어	5교시: 공강
6교시: 국어	6교시: 영어
7교시: 국사	7교시: 수학
SA시간: 라크로스	
ASG1: History	
ASG2: 정보와 컴퓨터	

IB반은 국내반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표와 커리큘럼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발표가 수행평가의 일부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국내반의 분위기에 비해, 토론과 발표 중심의 수업 때문에 말을 할 기회가 많다. 수업 자체가 자신의 의견을 많이 밝힐 수 있어 진행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어를 제외한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에게는 은근히 고충이라고 한다. 단원 평가와 발표 수업의 빈도도 높아서,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과학, 영어, 수학의 3개 시험과 국어 발표가 동시에 있을 경우도 있다. 영어 수업이나 일부 회화 수업에서만 숙제로 나오던 Writing 역시 일주일에 3~4페이지짜리 Essay를 4편 내외로 쓸 정도로 엄청난 양이다.

또한 ASG시간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학업량이 놀랍다. 위에 제시된 시간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ASG시간에 필수 수업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학교 가는 토요일에도 2시간씩 국사 수업이 있어 매우 힘든 일정이다.

이러한 일정 때문에 평균 수면 시간은 새벽 2~3시이고(일찍 자면 1시, 늦으면 4시라고) 아침밥 못 먹는 것은 이미 익숙해진 생활이다. 어쩔 때에는 점심도 못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새벽 2시에 자서 다음날 아침을 못 먹고 그 외에는 과학 단원 평가 공부를 해야 했다는 것이 한 학생의 증언이다.

짧은 수면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절대 잘 수 없는 것 역시 고통이다. 국내반 학생들도 작년에 Emma선생님의 수업을 들었다면 알겠지만, 수업 시간은 물론이고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조차 수면은 있을 수 없다. 이때에 졸기만 해도 IB반 전용 별점인 penalty slip을 받는다. 생활관에서 부여받는 별점과 별개로, 또 다른 별점을 받는 것이다. 국내반과 떨어져 있으면서 다소 불편한 점도 있다. 국내반의 수업은 Main Hall에서 이루어지는데 Global Hall에서 수업을 듣는 IB학생들은 아무래도 다른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국내반의 친구들과 교류가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소 힘든 생활에도 불구하고 IB반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만큼 IB반에서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화요일의 라크로스와 금요일의 농구, 축구는 운동을 하고 보고서를 쓰는 것이 IB프로그램의 필수로, 학생들은 꼭 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이 학교, 학원, 독서실을 전전하며 운동 부족이 되기 십상인데, 경기외고 IB반은 운동을 과제로서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한편, 국내반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수업 방식은 일金陵 스트레스만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국어 시간에 단순히 작품을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시를 폐리다하거나, 시의 영상화를 통한 학습 활동을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영상을 수준급으로 만든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이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짜보기(TOK 시간) 등 도전적인 프로

젝트를 경험하면서 정직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유로운 사고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일선의 선진 학교에서 창의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정책이 수능에 맞추어져 있는 한 그 한계가 이를 수밖에 없다. IB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스스럼없이 말하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른 지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낀다. 또한 수업 시간에 하고 싶은 만큼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열린 분위기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

IB반이 별개의 반으로 출범한 지 2년째, 완전히 다른 교육 시스템 하에서 국내반과 IB반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 혹은 어느 쪽이 더 힘든 생활을 하가는 등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각자 더 혜택을 누리는 부분이 있듯이 더 불편한 부분 역시 있을 것이다. 자신이 활동하는 곳이 어디이든, 경기외고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힘을 끌어 학교를 빛내는 가플리언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끝으로 기사를 쓰는데 많은 도움을 준 IB반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왕지민 기자



that need something like "if you think they're off or if you're not doing what you're supposed to do, I would appreciate it if you could let me know. I'm sorry, I have looked at the notes being discussed and the last thing of my life would be to do what I did, cause the answer has been "no" for me and I didn't get anything."





“Ms.Joy와의 만남”

을 해 경기외고에 새로 오신 조현주 선생님, Ms.Joy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유쾌하셔서 인터뷰를 한 「뜨락」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Ms.Joy: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Ms.Joy입니다.

뜨락: 반갑습니다 선생님~ 먼저 선생님의 간단한 경력 소개 부탁드려요.

Ms.Joy: 네 저는 TLBU Global School 이라는 미국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김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잠시 있다가 경기 외국어 고등학교에 오게 됐어요.

뜨락: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은 수업을 모두 영어로 진행하실 만큼 영어가 매우 유창하신데요,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Ms.Joy: 사실 선생님은 외국 거주 경험이 없어요. 그냥 대학교 때 미국과 유럽을 한 달 정도 여행한 경험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뜨락: 선생님의 익명이나 별음을 너무 좋으셔서 당연히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인 줄 알았어요. 선생님은 ‘조현주’라는 성함 대신 Ms.Joy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더 친숙한데 ‘Joy’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Ms.Joy: TLBU Global school에서는 공용어가 영어였기 때문에 수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영어를 써야했었는데 이를 때문에 고민이 됐었어요. 그러면 중 우연히 거리를 지나다가 귀에 쏙 들어온 노래가 ‘Joy to the world’였고, 그때 나도 ‘Joy to the students’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Joy가 된 거에요. 저는 기존의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틀 그 이상

의 관계를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조현주 선생님이기보다는 Ms.Joy로 불리고 기억되고 싶네요.

뜨락: 정말 멋있으세요. Jay라는 이름에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겼는지 몰랐어요. 그럼 올해 경기외고에 처음 오셨는데, 경기외고 학생들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Ms.Joy: 경기외고에 와서 첫 수업에서 살짝 놀란 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했다는 점이에요. 진지하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면이었어요. 그런데 경기외고 학생들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는 것 같아요.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점발 감탄스러울 정도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뜨락: 그럼 가장 힘드실 때는 어떤 때인가요?

Ms.Joy: 가장 힘들 때는 서술형 답안 채점할 때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해서 잘못된 답을 썼는지 알 것 같은데, 답안을 보고 또 보고 고민해도 맞게 해줄 수 없고 결국 험嶙 답안이라고 결론 낼 때가 참 마음이 안 좋고 속이 답답해오지요. 하지만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말로는 설명 할 수 없지만 어떤 새로운 생각에 즐거워하고 고민하고 놀라워하는 그 눈빛. 내가 단지 한 명에게라도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만으로도 행복하고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뜨락: 서술형 답안을 채점할 때가 가장 힘드실 때 라니 앞으로 선생님 힘드시지 않게 꼭 정답만을 적어내야겠어요^^ 그럼 선생님께서 가장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은 어떤 책인가요?

Ms.Joy: 중학교 1학년 때 읽었던 파트리크 쥐스

킨트의 『왕수』가 가장 감명 깊었어요. 아직까지 이 책은 저의 가슴을 뛰리게 하는 책이에요. 사춘기 시절 내 정체성과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신의 낌새가 없어 고로워하던 주인공은 정체성이라는 냄새를 찾아 헤매던 제게 큰 영감을 줬었어요.

뜨락: 선생님께 ‘교사’라는 사명감을 느끼고 이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Ms.Joy: 처음 교편을 잡은 시골 중학교에서 첫 중간고사 결과가 평균 40점으로 나왔을 때, 어떤 아이가 성적이 나빠 죄송하다며 산에서 따온 두릅을 가지고 판사로 찾아왔을 때, 매일 같이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자던 아이가 사실은 시력이 너무 나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경을 살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인 것을 알았을 때 좀 더 교사로서의 길을 걷고 싶었던 것 같아요.

뜨락: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선생님은 더 멋있는 분이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마디 부탁드려요.

Ms.Joy: 학생들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저에게도 뜻깊은 인터뷰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너를 응원하겠다.”입니다. 경기외고 학생 여러분 모두 파이팅!

박유현 기자

졸업생에게 묻는다

경기외고 5기 영중과 서원교 선배

 안녕하세요! 경기외고 7기 김민지입니다. 2011년 첫 신문에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루어 낸 선배를 인터뷰할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외고 5기 영중과 서원교입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선배는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가셨나요?

 저는 수능 보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고려대와 연세대에 글로벌 리더, 일반 우수자 같은 수시를 넣어봤었는데, 내신을 많이 보더라구요(웃음). 결국 전 정시로 대학에 갔습니다.

 그럼 수학을 정말 잘 하시겠네요! 사실 이번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사전 조사를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좋은 수학 공부법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경기외고에 응명회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 중 한 분이신데요, 선생님께서는 문제 위주 보다는 윤리 위주의 수학을 강조하셨어요. 시험에서도 윤리를 섞어서 응용문제를 자주 출제하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윤리 위주의 수업 방식이 수능 수학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선배님의 학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고려대 경영학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고려대 경영학과에는 세부 전공이 7개 있어요. 간단히 숫자를 다루는 회계·재무,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매니지먼트, 국제 경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 아직 한 학기 밖에 배워보지 않아서 전공은 배우지 않았어요. 나중에 전공을 배우게 되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대 경영학과 좋은 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좋다는 건지 궁금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먼저 학교에서 경영학과를 많이 밀어줘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경영/비경영으로 불릴 정도니까요. 학교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학과는 아무래도 더 좋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연대 경영학과보다 고려대 경영학과가 더 좋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고려대가 세계 100대 경영대학에 들어갔거든요. 교수님들도 모두 홀륭하시고 학생들도 경영학에 열의를 보이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게 선정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고려대만 들어갔다면서요(웃음).

 우와, 대단하네요. 그래도 한번쯤은 대학 가서 후회했던 순간이 있겠죠?

고등학교 때와 다른 점에 실망했다거나 했던 경우, 있으신가요?

 물론 있죠. 경기외고에 다닐 때는 '나는 경기외고 학생이다.'라는 자부심 같은 것이 있잖아요. 교장선생님도 그런 훈화 말씀 해주시면서 학생들 격려해주시구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끼리 있으면 소속감도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대학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특별히 없고, 스스로 학교 내에서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자율과 동시에 책임이 맞중합니다. 이어서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가 최고다. 고등학교 친구가 최고다'라고 하는가 봐요.

 그럼 경영학과에 다니시면서 '내가 외고 생이어서 다행이다.'라고 느꼈던 순간, 있으시겠네요?

 네. 경기외고도 그렇고 외고에서는 AP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경영학과에서는 도움이 참 많이 되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AP공부한 덕분에 1학기 경제 시험은 쉽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영어를 잘 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처음에 대학 갈 때, '그래도 경영학과나니깐 다들 영어를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나 일반계 고등학교 친구들은 영어가 많이 서툴러요. 고려대는 출입하기 전까지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10개 이상 들어야하는데 그 친구들은 영어수업에 많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 때마다 제가 외고 들어가서 영어 위주의 수업을 받은 것에 감사해요.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대학에 가서도 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니. 이 글을 보면 경기외고 학생들,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네요. 경기외고 학생들이 경영학과에 지원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논술을 꼽고 싶어요. 입시 때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대학에서도 대부분의 시험이 논술형식으로 치러지거든요. 미리 연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사교육의 힘을 받지 않고도, 학교에 ASG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최대한 글 많이 써보고 많이 침착 받아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배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문득 선배님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실지 궁금해졌는데요, 선배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공부를 좀 더 해서 정계 쪽으로 가는 것이 꿈이에요. 학생회장을 하면서 생기게 된 꿈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나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6·7·8기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대학에 와서 비로소 느끼게 된 건데, 경기외고는 참 얻을 게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우리학교는 학생회나 동아리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공부 말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해야겠지만 수능, 대학, SAT같은 것만 맹목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진학해도 지금 옆에 있는 친구와 같은 좋은 벗을 만나기 힘드니까 친구들끼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구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즐길 건 즐길 줄 아는 경기외고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외고 파이팅!

-인터뷰에 응해주신 서원교 선배님 감사합니다.

김민지 기자



“GAFL에서 사감으로 산다는 것”

“야, 왜 돌아다녀, 빨리 앉아!”

자습시간, 점호시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사감선생님의 목소리, 가플리언들 이 알고 있는 사감선생님의 모습은 그것뿐이다. 하지만 사감선생님들의 모습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뜨락에서 사감선생님들의 또 다른 모습을 알아보기로 했다.

사감선생님의 일과 : 저녁 8:30 출근

8:30~9:00 직원회의

9:00~9:30 운동장을 순회하며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단속

9:30~11:30 자기주도학습 감독

12:00 생활관 점호

1:30 직원회의

회의 후 4시간 정도 취침

취침 후 일어나서 기상지도 및 복장지도



왜 별점만 계속 주는지 불평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께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신다.

“사감선생님은 별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외부 음식을 반입했을 경우, 가장 마음이 아파요. 먹게 하고 싶지만, 학교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사감선생님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며, 엄한 모습 뒤에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달라는 선생님.

끝으로, 자습실이나 생활관내의 별점 규정 항목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를 잠깐 소개하겠다. 다음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별점을 받는 행위이다.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 ① 수시로 족집게로 손등의 털을 뽑고 있는 경우
- ② 오락을 하거나 만화를 보는 경우
- ③ 명하게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재빨리 공부하는 척하는 경우
- ④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생활관 내에

- ⑤ 음식을 반입하는 경우
- ⑥ 고데기 같은 반입 금지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점을 주고 받는 행위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언짢은 기분만을 남길 것이다. 가플리언들은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보다 넓고 큰 사회에서의 삶을 이해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성원 기자

안종협 샘과의 데이트 - 순수한 열정

(독자 기고) 1·8반 김지원, 이상규, 최소정, 한디정은 청명한 가을 날 안종협 샘과 데이트를 즐겼다.

목적을 가지고 공부하라. 무엇인가를 알려고 배우는 자는 현명하다. 그러나 남에게 알려지려고 배우는 자는 어리석다. 동양격언에 나오는 등장하는 명언이다. 이 명언은 배우는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말일 것이다. 이 격언을 본 순간 우리에게 영어청해를 가르치시는 안종협 선생님이 문득 떠올랐다. 어디로 빨지 알 수가 없으며 월별과도 꼭 닮은 안종협 샘과 즐거운 데이트였다.

안종협 선생님은 현재 경기외고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며, 영재교육원 교사로도 일하고 계신다.

Q. 선생님, 영재교육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월렛 : 영재교육원에서 하는 거 없는데? 영재교육원에서 뭐하고 있지 난?

이렇게 농담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늘 이런 식이시다. 선생님께서는 영재교육원에서 언어 영재라 불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지도하시며 많은 활동과 행사를 주관하신다.

Q. 교사의 꿈은 언제부터 가지신 건가요?

월렛 : 음... 좀 부끄러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생 때 내가 굉장히 단순했어. 그 때 내 시각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해 보였어. 우리는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선생님들은 우리보다 일찍 집에 가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런 것이 부럽더라고. 그래서 나도 선생님 되겠다고 생각했어. 정말 무식하지. ㅋㅋ

Q. 중, 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모습은 어땠을지 정말 궁금해요.

월렛 : 뭐, 그냥 매우 단순한 놈이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 중학교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완전히 미쳐서 500명 중 480등인가 할 만큼 성적이 형편없었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신기하고 재미있더라고... 그런데 중 3때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공부에 흥미를 불이게 되었고, 성적도 전교 30등까지 피아~ 올랐지 ㅋ 그 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 지금도 중 3때 은사님 김미화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야. 내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격려를 해주셨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자연스레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성적도 많이 올랐지.

Q. 와아~ 정말 대단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월렛 :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1, 2학년 때는 통학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독서실을 잡고 거기서 먹고

자고 기숙을 했지. 집이 좀 멀었거든. 2주일에 한번씩 집에 가고 공부만 했어. 그런데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 ㅋㅋㅋ

Q. ㅋㅋㅋ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성적을 올리셨어요?

월렛 : 짹꿍을 잘 만났지. 전교 1등을 하면 녀석이 짹꿍이었는데, 그 녀석의 도움으로 2학년 때부터 공부 전략을 바꾸고 꾸준히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더라고. 내가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건,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성적이 올랐어.

Q. 에이, 정말로요?

월렛 : 정말이야. 1학년 때 주위 친구들에게 무시를 많이 당했거든. 주위 친구들이 "야, 인마 너처럼 공부하면 난 전국 1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놀렸었는데, 2학년 되어서 성적이 계속 오르니깐 이젠 "야, 너 공부 어떻게 하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인마, 넌 해도 몰라 짜식야."라고 했지. ㅋㅋ

이, 안종협 선생님 정말 유치하고, 또 해맑다는 생각이 든다.

Q. 선생님, 예전에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다면 데요?

월렛 : 응, 대학에서도 강의를 많이 했었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주제로 강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어.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인기 정말 좋았었는데.

이 선생님, 은근히 자랑하신다.

Q. 에이, 정말요?

월렛 : 진짜 안 믿네. 일등 교수의 비결이 뭔 줄 알아? 딱 두 가지야. 첫째, 강의 준비를 열심히 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만들기. 둘째, 이런 종 그런데 학점을 잘 주는 거야. ㅋㅋㅋ

선생님 정말 솔직하시고 유쾌하시다.

안종협 선생님은 1학년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선생님이시다. 우리는 모두 안종협 선생님의 수업이 매일 기다리진다. 영어청해시간은 저절로 눈이 조용조용해지고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Q. 선생님, 이건 진심인데 선생님 수업이 정말 좋아요.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월렛 : 뭐야, 왜 갑자기 칭찬이야. ㅋㅋㅋ 근데 내가 성질이 좀 까탈스러워서 주로 어려운 길로 가. 그래서 공부를 좀 길게 했었어. 그렇지만 덕분에 본 게 좀 많거든. 그래서 이걸 수업할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 그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작업이 꽤 힘들어. 그래서 가끔은 자료 하나 찾으려고 이러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 좀 우습기도 한데 그래도 그러고 싶어.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것을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즐거워하면 정말 뿌듯하고 행복해.

단순한 듯해도 정말 순수하시고 열정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Q. 선생님, 인기의 비결이 뭔가요?

월렛 : 그래? 내가 인기있다고? 잘 모르겠는데. 난 몰라. 그냥 너네들을 좋아할 뿐인데?

우와, 물결한 감동까지 안겨주신다.

Q. 정말 감동이에요.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월렛 : 나도 고등학생을 해봤잖아.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순수한 열정을 가지라는 거야.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간에 후회가 없을 거야. 열정은 순수해야 돼. 화려하고, 강연하면 안 돼. 화려한 목표가 있는데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집단에 도움이 안 돼. 순수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주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Q. 정말 감동이에요. 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월렛 : 그래, 앞으로 또 수업 시간에 즐겁게 지내 보자.

안종협 선생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일단 정말 즐거웠고, 또한 선생님의 순수한 열정을 가슴 물결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와 함께할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욱 기대된다. 선생님 사랑해요♥

(사진) by 1-8 김채영, 박수연 님





목요음악회

경기외고 오케스트라 동아리 “풀체”가
목요일 점심시간에 목요음악회를 열었다.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께 환상의 하모니를 들려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DTAHWU 앨범 발매 비하인드 스토리



동아리 역사상 최초로 앨범을 발매하며 화려하게 2011년의 문을 연 힙합 동아리 디타우(DTAHWU), 최근 제작한 앨범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지금 디타우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 만큼 앨범 제작 과정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특별히 디타우의 부장 안상윤군, 보컬과 텁을 담당하는 이상은 양을 모시고 앨범 제작 이야기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Q. 지금 앨범 판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A. (상윤) 3일만에 완전히 매진됐어요. 정말 상상도 못해서 아직도 얼떨떨해요. 원래 300장만 찍을 예정이었는데 500장 찍길 잘한 것 같네요.

Q. 3일만에 500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재판을 찍을 예정은 있으신가요?

A. (상윤) 아니요. 그건 무리일 것 같아요.

Q. 앨범 수익은 모두 기부하신다고 들었는데,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나요?

A. (상윤) 앨범 제작하는 데 모두 86만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정도의 수익만 내자는 것이 목표였는데……그건 뭔가 멎어 없어서(웃음).

Q. 어느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신가요?

A. (상윤) 월드비전이나 적십자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부원 모두와의논해서 결정하려고 해요.

Q.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앨범을 제작하기로 결심하신 건 언제였나요?

A. (상윤) 앨범 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전 부장인 경일 형이었어요. 여름방학 때였는데……아쉽게도 작년에는 하지 못했죠. 그러다 제가 이번에 부장으로 선출됐는데 웬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용인외고의 영향은 전혀 없어요.

Q. 앨범 녹음은 어디에서 하셨나요?

A. (상윤) 안양에 있는 정말 작은 지하 스튜디오에서 했어요.

(상윤) 아마 전국에서 가장 쌈 곳일 거예요. 쌈 곳을 찾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Q. 앨범 제작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A. (상윤) 2월에 시작해서 5월에 앨범이 나왔으니 약 3개월 걸렸네요.

(상윤) 그런데 녹음하는 데는 이를에 나눠서 총 6시간 걸렸어요.

Q. 앨범에는 총 16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노래 배분 등에 원칙 같은 것이 있었나요?

A. (상윤) 대충 윤곽만 잡아 놓았을 뿐 정확히 나누지는 않았어요. 각자 마음에 드는 MR을 찾으면 가사를 쓰고, 그러다 여럿이 같이 하기도 하고. 유기적인 구조였죠. 처음엔 15곡에서 20곡정도 예상했는데 최종적으로 16곡을 녹음했어요.



DTAHWU

Q. 직접 작사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상은 양은 어땠셨나요?

A. (상은) 저는 방학잔류를 하는 내내 가사 구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가사를 쓰기 시작한 것은 잔류가 끝난 후였죠. 확실했던 건 여자애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곡을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중 주제를 짹사랑으로 정했죠. 짹사랑으로 두근거리는 감정은 여자라면 누구나 공감하잖아요? 쓰다가 너무 오글거려서 힘들긴 했지만(웃음). 그곡이 바로 딜레마(Dilemma)예요.

(상운) 저는 겨울방학 때 썼는데 숙제랑 겹친다보니 가사를 쓰느라 새벽 4시까지 깨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가 참여한 노래는 총 6곡인데 가사가 담고 있는 주제는 모두 달라요. 여러 주제를 가진 노래들을 통해 제가 다양한 가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꼭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RE-Q. 6곡이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웃음)

A. (상운) 솔직히 말하자면……솔로 곡은 부장의 지위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웃음). 원래는 더 하고 싶었는데……눈치 보여서(웃음)

Q. 노래들 중 '이별은……'이라는 곡이 경험담이라는 뿐만 아니라, 사실인가요?

A. (상운) 절대 아닙니다. Pure Imagination이에요!

Q. 녹음할 때 힘들었던 점은 없었나요?

A. (상운) 녹음실의 위치가 문제였어요. 제가 사는 일산에서는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으니까……와 진곳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마땅히 먹을 곳이 없기도 했고. 또 제가 녹음실에서 녹음한 유일한 여자 멤버라 좀 어색했어요. 남자 멤버들이 워낙 열심이라 혼자만 아마추어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웃음).

Q. 녹음하면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A. (상운) 경일 형이 보컬 녹음을 할 때가 생각나네요. 녹음실 대여료가 한 시간에 25000원인데 보컬 녹음에만 40분이 걸렸어요. 형이 좀 완벽주의거든요. 그 노래가 25000원짜리 노래라고 생각하시면서 돼요(웃음). 그만큼 시간이 정말 촉박했죠.

Q. 앨범 제작을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A. (상운)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다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상운) 일단 글 솜씨가는 것 같고……제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좀 놀랐어요. 원래는 더 좋은 것 같았는데(웃음)

마지막으로 상운 군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상운) 마지막으로. 리핑 못해서 MP3로 음악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알려드려요. 원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11을 깔면 그게 자동으로 리핑을 해 줘요. MP3에 꼭 넣어서 하루에 한 곡씩은 들어 주세요!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운 군과 상은 양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정적인 공연으로 경기외고인의 스트레스를 날려 주시길 바라요.

김지현 기자

함께 읽어 보아요!

1. 10대의 마지막 3년,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입시 준비로 학원에서 족치고 박혀있었다. 그렇게 들어온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복 예쁘다. 캐리어 들고 들어 올 때 뿐듯하다. 자랑스럽다. 선배들은 공부도 잘하시고 놀 때는 잘 노신다. 존경스럽다.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꿈꾸던 10대 생활이었나? 수행평가에, 모의고사에, 내신 준비하다 보면 시간은 훌쩍 지나았다. 친구들과 재밌게 지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공부의 압박은 너무 힘들다.

막상 자신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 없는 가플리언들에게 '청춘'과 '10대'에 대한 3권을 소개해주고 싶다. 10대를 대상으로 쓴 책으로, 10대이기에 읽을 수 있는 책이고, 10대이기에 공감가는 책이다. '좋은 글귀만 써져 있는 책은 가식적이야, 공감도 안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권 읽어보자.



아프니까 청춘이다/김난도
학생들 모두가 동경하는 서울대학교, 서울대생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는 무엇일까? 바로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의 강의이다. 이 강의는 학생들이 직접 평가하는 '서울대학교 우수강의'에 선정되었으며, 매 학기 초 서울대에서 가장 빨리 수강신청이 마감된다.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김 교수의 청춘을 향한 따뜻하고 날카로운 충고를 담은 책이다.

- 그대 눈동자 속이 아니면 답은 어디에도 없다
- 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다
- 기적이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 '내일'이 이끄는 삶, '내일'이 이끄는 삶'들이 책의 목차로, 청춘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온 많은 공감되는 이야기 중 하나를 소개해본다. 구멍이에 사람이 줄을 잡고 매달려 있다. 사람들은 그 줄을 놓치면 큰일 나는 줄 안다. 하지만 사실 구멍이의 바닥은 깊지 않다. 사람의 삶에서도 그렇다.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자. '슬럼프, 사랑, 스攀升, 대학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으며, 청춘을 일깨우는 책이다.

10대를 위한 가슴이 시키는 일



10대를 위한 가슴이 시키는 일은 10대를 위한 블로그 9명의 삶을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는 카피라이터로 감성적인 카피만큼 뛰어난 글 실력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대한민국 10대를 위한 가슴이 시키는 일

대한민국 10대는 청춘을 공부에 쏟아야 하는, 아니 적어도 그래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는 나이다. 하지만 한국에 경기외고생들처럼 모두 공부를 잘하거나 혹은 열심히 하는 10대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작가 김순천은 각기 다른 학교와 상황에 있는 10대를 뽑아 인터뷰했다. 이 책을 통해 인문계고, 실업계고, 대안학교, 자퇴생, 복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 그들의 열정, 우리나라 교육 현실의 문제점 등을 엿볼 수 있다. 흥미진진한 인터뷰가 가득 담긴 책으로, 줄줄이 따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현재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이 책을 읽어보고 자신을 반성해보자.

2. 우리는 항상 선택 앞에서 고민한다.

무슨 머리를 할지, 무슨 음식을 먹을지, 또 어떤 딱지지를 고를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청소년기의 막바지에서 우리는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장소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흥미로운 물음을 던진다. 나의 욕망을 위한 선택이 남을 나락으로 몰아가는지 않는가?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나에게 지불된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비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게다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다룬 이 소설은 우리를 오묘한 망상으로 이끌 것이다.

속이 시원해지는 뺨집 짐장의 거칠없는 입담과 주인공들의 애환을 느껴보자.



위저드 베이커리/구병모
여러분에게 시간을 되돌리는 뺨이 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되돌린다고 해서 되돌리기 전의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다. 즉, 과거로 돌아갔을 때 다시 과거의 그 순간이 반복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당신은 뺨을 사용해시간을 되감을 것인가?

김혜주, 임도현 기자
사진과 자료 출처: 교보문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기도회의 비밀”

매일 오후 9시, 다목적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몇 명의 학생들. 그리고 이들을 궁금한 듯 쳐다보는 나머지 학생들. 이 학생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는 것일까? 바로 기도회다. 과연 기도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기도회 모임에서의 모습을 살짝 공개한다.

선교부장 오세빈(2~4) 학생의 인도와 진진하게 흐르는 찬양가 아래 기도하는 가플리언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신실한 신앙심을 다짐하는 모습.

“주로 마음이 힘들 때 기도회에 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기독교를 믿는 독실한 크리스천들만 기도회를 참가했으나 요즘 들어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뭘까? 기도회에 온 학생들 중 크리스천이 아닌 한 학생의 말을 들어보았다.

“기도회에 참가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나면, 마음에 응어리쳤던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다 해소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 학생 외에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기도회의 장점은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상쾌해졌다는 것이다. 찬양팀이 주도하는 기도회에서는, 보다 흥미롭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무거운 학생들은 가끔씩이라도 기도회에 가면 마음의 짐을 덜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성원 기자





가플리언에게 기숙사란?

경기외고에서 기숙사는 학생들의 또 다른 집입니다. 그만큼 학생들에게 중요하고 친숙한 공간인네요. 프락에서 가플리언의 기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암케이트를 통해 들어보았습니다.

기숙사에 가장 들어가고 싶을때는?



가플리언들이 기숙사에 가장 들어가고 싶을 때는? 본 암케이트 외에 각종 설문조사를 할 때에도 학생들이 SA 기숙사 개방을 원했었는데요. 역시 SA 시간에 할 일이 없을 때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물건을 놓고 왔을 때가 근소한 차이로 2위가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바로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 보니 중학교 때 집에 물건 놓고 왔을 때보다 더 안타까움을 느끼는 듯합니다. 그 중에서도 수행평가 완성한 것을 놓고 왔을 때는 정말 간절해지죠. 3위로 22%의 학생이 공부 안 되는 자습시간에, 4위로 12%의 학생이 아舛 때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때에도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답한 학생과 항상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다고 답한 학생이 소수 있었습니다.

집과 엄마가 가장 그리울 때는?



이 문항에서는 항상 집과 엄마가 그립다는 답변이 1위일 것이라는 예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예상대로 36%의 학생이 항상 집과 엄마가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2위는 급식이 맛이 없을 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월 1일부터 급식이 많이 바뀌었으니, 집과 엄마가 조금은 덜 그립겠죠? 그리고 1번 문항과 마찬가지로 집과 엄마가 그리울 때가 없다는 강인한 가플리언도 소수 있었습니다.

룸메 정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룸메이트 상대로 어떤 친구가 가장 좋을까요? 룸메이트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을 물어보았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를 룸메이트로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70%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1주일에 한 번밖에 가족을 볼 수 없고 1주일동안 스스로 생활해야하는 기숙사생활에서는 친구가 곧 가족이겠죠? 2위는 1위와 아주 큰 차이로 잘 깨워주는 룸메가 차지했네요. 늦게 일어났는데 친구들이 모두 나가고 방에 아무도 없으면 허무하죠? 잘 깨워주는 친구와 친해지면 일상에 유용한 룸메일 얻을 수 있겠죠.

내 룸메 이럴 때 가장 알미워요!





네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의 훈훈함을 깨고 룸메이트가 가장 알미을 때를 조사했습니다. 알람 맞춰놓고 안 일어나는 룸메와 내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룸메가 공동 1위를 차지했어요. 자신은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친구들의 소중한 수면시간을 빼앗는 룸메이트들 반성하셔야겠습니다.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 '내 물건과 남의 물건'에 대한 의식이 회미해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평화로운 기숙사 생활을 위해서 룸메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것은 자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숙사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29%의 학생이 늦게 들어와서 수건이 없을 때 가장 절망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경기외고에서 '수건 전쟁'이라는 말이 편히 쓰이는 게 아니군요. 두 번째는 '샤워실의 줄이 끊이 안보일 때' 인데요. 샤워실에서 친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명 샤워실 토끼)도 좋지만 뒷사람도 생각하는 것이 서로에서 좋겠죠? 3위는 '너무 힘든데 엘리베이터를 못 탈 때'입니다. 엘리베이터에 대한 고충은 정말 모든 가톨릭언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4위는 16%로 '공부해야 하는데 사감 선생님께서 못하게 할 때' 인데요.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새벽형 인간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정한 일과표에 따라 생활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인 듯합니다.

기숙사에서 벌점을 받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해선 가장 눈에 띠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59%나 되는 학생들이 음식을 물래 막다가 걸려서 벌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기숙사에서 음식을 섭취가 엄격하게 규제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데기 등의 금지품목 등의 사용으로 벌점을 받는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는데요. 기숙사는 여렷이서 함께 사는 곳이니 불편하더라도 쓰지 말아야 하는 물건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죠?

금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노는 방법은?



금요일 밤에 기숙사에서 노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50%의 학생들이 친구들과 실컷 수다를 떤다고 답했는데요. 금요일 밤은 룸메이트들과 일주일 동안 못 다한 이야기를 하느라 분주한 듯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냥 잔다는 답변이 24%로, 영화나 음악을 즐기는 답변이 19%로 각각 2,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주일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문화 생활로 해소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죠.

'우리방에 [] 가 있다.'

우리방에 비키니걸들이 있다. -2학년 8반 김현수
 우리방에 친구들이 늘 씻으려 가 있다. -2학년 8반 정희원
 우리방에 냄새 날 수가 있다. -1학년 8반 최진경
 우리방에 짹트는 곰팡이가 있다. -1학년 4반 이은경
 우리방에 옷걸이와 옷으로 동굴을 만드는 애가 있다. -1학년 4반 사혜원
 우리방에 바다이 없다. -2학년 1반 김유래
 (방을 치우지 않아 바다이 없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
 우리방에 미니게임천국 전국 5위가 있다. -2학년 4반 정은용
 우리방에 수건 먹는 귀신이 있다. -1학년 4반 구자준

김도형, 이지윤, 이초이, 최선자, 최연재 기자

Global High School

경기외고의 슬로건은 'Global Top 7 High School'이다. 우리 학교가 Global Top 7 High School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Global Top 7 High School이 어떤 학교들인지 알아야 한다. 하지만 '세계 주요 대학 100개'처럼 고등학교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해 순위를 매긴 자료는 현재 없다. 그래서 프락에서 미국, 캐나다, 중국 등 7개국의 명문 학교를 조사하였다. 각국의 특목 고라고 할 수 있는 명문 학교들의 커리큘럼, 설립 목표, 시설 등에 대해 소개하겠다.



1.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학교

토마스 제퍼슨 학교는 미국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해 있다.

1946년 개교 했으며 한 학급 평균 10명의 학생으로, 학생과 교사의 비율이 6:1이다. 한 학급에 학생 수가 10명 내외로 소수정예수업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을 보다 직접적이고 심층적으로 케어(Care)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35분인데, 이 짧은 시간동안 교사는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한다. 6시 이후로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 교실이나 공부방에서 틀어박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시간 관리를 하며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 <6시 30분 공부방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학업 능력이 뒤쳐진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선진화 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토마스 제퍼슨 학교는 SAT 평균 성적 4년 연속 1위라고 한다.

2. 세븐옥스(sevenoaks) 학교

이번엔 영국으로 가자. 한국 사람들은 '이튼 칼리지 (Eton college)'가 최고의 명문학교인 줄 알고 있지만 영국 더 타임즈가 선정한 영국 명문학교 순위 중 1위는 세븐옥스(sevenoaks)학교이다. 명문학교인 만큼 입학도 힘들다. 학교에서 하루 넘게 머무르면서 면접을 본다. 부자집 자제인 소수의 엘리트만 다니는 이른바 귀족학교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이기적인 엘리트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금은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비싼 등록금만큼 진학결과도 좋다. 졸업생의 20%정도가 영국과 미국 최고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세븐옥스 학교는 600년의 전통을 갖고 있음에도 현대적인 요소 역시 놓치지 않는다. 최근 실내 암벽타기인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25m 대형 수영장을 갖고 있을 만큼 대학 캠퍼스 뜻지않은 시설을 자랑한다. 세븐 옥스 학교에서는 예체능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한다.

세븐옥스 학교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이다. 수업 평가도 대학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고전문명론 과목의 경우 수업 태도 30%, 세미나 발표 20%, 시험 50%로 학점을 부여한다.

3. 옴니아 학교

교육하면 단연 핀란드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임식교육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을 기우는 교육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성적 1위 고등학교 말고 핀란드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핀란드에서 유명한 옴니아 학교는 직업교육을 하는 학교이다. 한국적 교육 상식과 반대로 핀란드에서는 직업학교가 더 들어가기 힘들다. 옴니아 학교는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원하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직업교과 이외에 문학, 자연과학, 수학, 페스토랑, 경제 교과 등을 학습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의 중요성을 체득한다. 옴니아의 여러 학과 중에는 이미용과, 임상 간호학과, 환경조경학과, 건축과, 목공과 등이 있으며 청소부과도 있다. 이미용과에서는 실습재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실제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습을 한다. 졸업할 때 핀란드 국가교육청의 엄격한 현장 실습 평가를 통과하여 약 75%가 취업에 성공한다고 하니 여느 대학 졸업생 부럽지 않다.



4. 중국 인민대학 부속 중고등학교

북경에 있는 중국 인민대학 부속 중고등학교는 청와대학교, 북경대학교, 인민대학교 등 전국 주요 대학의 베출 1위를 자랑하는 중국 최고의 고등학교이다. 경기외고와 마찬가지로 Global Top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외고와 같이 기숙학교이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섯 개의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에는 선진적인 시설을 갖춘 각 유형의 실험실, 현대식 시청각 센터, 차량운전 모형 연습실과 원거리 주행교실, 행성 영어교실, 컴퓨터 회로망 실험실 등 다양한 전용교실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의 학교이다. 2002년부터 외국인 학생들을 모집하여 현재 200여명의 외국인들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필수 이수 과목으로는 중국어, 중국 문화, 수학, 영어,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등이 있고 선택 과목으로는 문화 감상, 천문 관찰, 인터넷 사이트 만들기, 영어 국·외국어 선택 과목에는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한국어, 이탈리아어 등 9개의 언어가 있다.

5. Southridge high school

Southridge high school은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캐나다 전국 고등학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명문 사립 고등학교이다. 사우스릿지의 커리큘럼은 학생들을 보다 학구적이고, 질서를 잘 지키며, 정직하고, 용기 있으며, 충직하고, 책임감 있고, 신을 믿으며, 상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악실, 컴퓨터실, 미술실, 학창실, 물리실험실, 다용도실, 상담실, 농구장, 배구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교사 한 명당 10명의 학생을 맡을 정도로 소규모의 학생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단일 성별일 때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신념으로 남학생들은 남교사와 교수학습활동을 한다. 현재 사우스릿지 고등학교에는 27명의 한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 이들 중 일부가 우등생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

6. 경기 외국어 고등학교

현재 우리학교가 'Global Top 7 High School'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경기외고가 전문적으로 고등학교를 평가한 자료에서 Global Top 7 High School로 평가될 날이 올 것이다.

경기외고는 교육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교육 성과 달성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실화학습을 진행한다.
둘째, 외국어 교육과 바람직한 토론 문화 중심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힘쓴다.
셋째, 리더십과 글로벌 매니저 교육을 통해 지구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세계적인 리더의 소양을 길러준다.

넷째, 전인교육과 봉사활동 참여 교육을 통해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인 인재를 양성한다.
경기외고는 올해 1월 국내 처음으로 IB world School로 인증을 받았다. IB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약자로 국제학위라는 뜻으로 세계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학력인증 프로그램이다. IB는 초등 학교 학생들을 위한 PYP(Primary Years Program)과 중학생을 위한 MYP(Middle Years Program), 고등학생을 위한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이 있는데 경기외고가 IBDP 운영학교로 인증을 받아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대학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경기외고의 문을 연 6기! 학교를 떠나면서...

현재 경기외고는 2008년 6월 명지외고가 경기외고로 전환된 학교이다. 경기외고로 바뀐 후 처음 입학한 신입생인 6기가 벌써 졸업을 앞두고 있다. 달라진 경기외고를 처음 경험하며 때로는 새롭고 때로는 힘든 3년을 보냈을 6기 학생들을 만나보자.

PART 1. 나의 고등학교 3년은...

6기 안서현, 김선진 선배를 만나 선배들의 고등학교 생활 3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고등학교 생활을 끝낸 선배들이 전하는 학교 생활에 대한 여러 생각과 후배들에게 주는 팁을 들어보자.

Q. 6기가 명지외고가 경기외고로 바뀌고 처음 입학한 기수잖아요. 아무래도 학교의 여러 모습이 처음 바뀐 시기니까. 다른 기수보다 입학이나 학교생활에 있어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A.

안서현 : 우선 교복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선배들과 분리되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1학년 때는 6기만 교복이 달랐었기 때문에 1학년이라는 점이 확드러났었죠. 지금 7,8기들보다 교복 값도 훨씬 비쌌고요.

그리고 경기외고에서는 처음 뽑았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나 방과 후 학교 등 학교 프로그램에서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때는 SA 타임 때 영어나 제2외국어 수업, 그리고 운동과 음악 관련 커리큘럼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서 들어야 했었어요. 이처럼 여러 가지로 6기는 4,5기들 그리고 7,8기들과는 많이 다른 학교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김선진 : 입학했을 때는 얼떨떨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좋아진 건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선배님들의 말을 듣고 ‘이런 점이 바뀌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고, 좋게 바뀐 것도 있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지 선배님이랑 교복도, 수업 방식도 달랐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심지어 우리 후배인 7,8기를 뽑는 방식도 우리와는 달랐기 때문에 가운데 끼인 어정쩡한 느낌도 많이 들었습니다.



Q. 경기외고 3년 생활 중 스스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A.

안서현 : 3년 생활 중에서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2학년 여름방학 때 동명초등학교 영어 캠프 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당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동명초 캠프가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장기적인 봉사활동과 같은 학교 밖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입니다. 사실 대학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길게 봤을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너무 학교에만 안주했던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김선진 : 지금 생각해보면 내신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공부만 죽어라 하는 밥맛없는 아이가 아닌, 공부와 친구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던 것도 자랑스럽습니다. 반대로 후회되는 일은 기숙사를 나가서 자취 생활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자취 생활을 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아주 많았고 추억도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만일 저를 통제해주는 기숙사에서 열심히 살았더라면 더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학업 성취를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Q. 경기외고 3년 생활 중 가장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은?

A.

안서현 : 가장 좋은 기억은 작년 축제 때 귀신의 집을 운영한 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축제였던 만큼 기대도 컸었고, 귀신의 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 아이들과 단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귀신의 집 안에서 귀신 역을 해보는 경험에 정말 색달랐습니다. 보통 손님 입장에서는 처음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 어두워서 앞이 잘 안보이지만, 귀신 역을 하는 저희는 전부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이는 친구가 들어오면 뒤에 몰래 웃어다니면서 손님들 놀리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답니다. 귀신의 집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정말 재미있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기억은 1학년 때 50분짜리 영어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원들과 제대로 협력하지 못해 발표를 맡아야했던 일 같군요. 어떻게 보면 3년 학교생활 중에 굉장히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기억이지만, 처음으로 준비해본 긴 발표였고 그만PLEMENT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원들과의 협력이 잘 안되고 제가 욕심을 부려서 생긴 실態여서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뒤로 수많은 발표를 하면서 잘되기도 했고 생각만큼 못했기도 했지만, 그때 기억만큼은 잊혀 지지가 않네요. ^^



김선진 : 가장 좋은 기억은 과 전체가 뜰을 뭉쳐서 준비했던 학교행사에 관한 기억입니다. 퍼레이드라든지, 반 카페 같은 것을 준비하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들었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나쁜 기억은 1학년 초에 처음 학교에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한 채 교실에서도, 기숙사에서도 걸들기만 한 것입니다.



Q. 외고 입시준비를 하던 때부터, 수능이 끝난 지금까지 돌아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A.

안서현 : 힘들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힘들었던 4년이었습니다. 딱히 남들보다 열심히 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꾸준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외고 입시를 준비하면서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했었고, 그 후 1년은 외고생이 되었다는 약간의 자만심과 자신감,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아이들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보냈습니다. 고2가 돼서야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학교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며, 마침내 고3때는 심적으로 여유까지 부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고를 준비했던 1년과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배웠음을 느낍니다. 우리 7,8,9기 학생 여러분도 저처럼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수능 점수와 대학 이름만이 아닌 다른 것들도 얻어가길 바랍니다~

김선진 : '내 생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때가 과연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외고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외고에 들어온 후에는 '이렇게 공부를 계획해 해도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놀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어서 생각해보면 열심히 살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공부할 때에도 열심히 했고, 놀 때에도 열심히 놀았고, 내신 기간에는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살다보면 뭐가 되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외고에 합격한 것부터, 지금 현재 대학에 합격한 것까지, 모두 열심히 살아서 얻게 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Q. 이제 끝 졸업을 앞두고 계신데, 7,8,9기 후배들에게 텁을 주신다면?

A.

안서현 : 고1,2 때는 자신의 진로나 가지고 싶은 학과, 대학에 대한 탐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3이 되어서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고등학교 3학년은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가요. 물론 집중해서 하다보면 못 하지는 않겠지만, 그 학과에 기기 쉬운 입시 전략을 3학년이 되어서 짜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수시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포트폴리오나 스페, 생활기록부에 많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즉 미리미리 자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학을 갈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학을 가던(국제학부 등을 제외한 국내 대학의 경우) 내신관리나 수능 준비가 매우매우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죠? ^^\n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고1,2되는 학생분들 모두 언수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솔직히 고1,2 때는 수행평가 할 때와 시험보기 한 달 전만 빼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이 시간에 언수와 공부 꾸준히 하세요. 언수와는 절대 단기간 해서 오르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은 정말 많이 해놓을수록 고3 생활이 편해집니다. 고1,2 때 수학만 잡아놔도 고3되서 다른 공부 할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늘어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고1,2 때 수학만 하루에 4시간씩 했고, 고3되서는 하루 1~2시간씩밖에 안 했습니다. 수능 외국어의 경우에는 고1,2때 공부 소홀히 해도 모의고사 잘 나오다가 고3되서 급하게 다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놓지는 마시구요.

이제 고3되는 7기 여러분, 사람됨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수의 전부 1등급 맞아도 사람 못 보면 정말 정시로 갈 대학이 없어요ㅠㅠ. 사람 공부는 고2때부터 조금씩 하는 것이 좋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고2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까지 사람 소홀히 하신 분들은 사람 공부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또 고3되서 모의고사 보면 6월 모의 보기 전까지는 나를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다가 재수생 들어오면 1등급 맞기가 많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묵묵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선진 : 내신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에서도 여러분을 생각해서 내신을 수능과 아주 무관하게 수업하거나 시험출제하지 않아요. 고 삼이 되는 후배들에게는 들이켜 봤을 때 후회가 없을 정도로, 자신을 속이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8,9기 후배들은 다양한 경험을 해 보라고 말하고 싶네요. 결국 고등학교 생활이 끝났을 때 남는 것은 내 주위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추억들, 경험들 뿐이더군요. 열심히 사세요. 혹시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해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그 때 내가 열심히 살았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답니다!

PART 2. 졸업을 앞두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등학교 3년 생활을 마치고, 곧 학교를 떠나는 6기 선배들! 졸업을 앞둔 소감을 들어보았다.

〈양하민〉 3년간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다. 방송부, 홍보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며 겪었던 추억들은 결국에는 내 삶에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3, 힘든 1년이었지만 끝까지 열심히 한 자가 결국엔 승리한다는 말이 진실임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7기 후배들도 1년만 꾹 참고 달려서 좋은 결과를 얻기!

〈김다원〉 작년 5기 선배들께서 수능 끝나고 학교가 너무너무 그리워진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기숙사 학교라는 특성 탓에 하루종일 24시간 친구들이랑 붙어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너무 어색하고 다들 보고 싶어요. 사실 1,2,3학년 때에는 수행평가에 치여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었는데, 지나고 나니깐 그게 다 추억이고 그것마저 그리워지네요. 7기, 8기, 그리고 이제 끝 들어올 9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졸업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많이 쌓길 바라요~

최연재 기자



선생님의 가족들

때론 카리스마 있고, 때론 재미있고, 때론 다정하신 경기외고 선생님들! 선생님들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떨까? 또, 선생님의 가족들은 어떤 분들일까? 선생님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2세 사진을 공개한다.



정지성 선생님과 선생님의 아내, 대한, 요한, 한나



서윤미 선생님과 남편, 아들 규민



김지현 선생님과 남편, 딸 세린



G AFL의 대표 커플.

박준희 선생님♥정지혜 선생님 부부와 아들 선우

지면이 부족하여 네 분의 선생님의 가족 사진만 소개하였다. 다른 선생님들의 가족 사진도 궁금하다면,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가족을 소개해달라고 살짝 부탁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최인재 기자